

전주시, 5대 신성장산업 선정

탄소·ICT·IoT·3D프린팅·드론산업

미래 사회의 먹거리는 신산업이다. 국가경쟁력 사업이자 지역 경제를 탄탄하게 이끌어갈 신산업은 국내의 경제시장의 핵심 역량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탄소산업과 함께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 산업, 3D프린팅산업, 드론산업 등 5대 신산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갈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들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대규모 일자리 등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탄소산업을 선점한 3D프린팅의 도시

전주는 국내유일의 탄소산업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일

컬어지는 3D프린팅산업을 차세대 제조업의 새로운 산업 육성하고 있다.

전주가 국내 3D프린팅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탄소산업을 선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전국 유일의 탄소밸리가 구축돼있는 도시로, 3D프린팅의 소재로 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주가 3D프린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 무인비행장치 드론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

새로운 미래산업인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KLX)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드론 안전성 검증

시험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형 사이너지 융합서비스 거점으로 도약

미디어가 ICT인프라와 결합해 시공 간과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스마트미디어 사업'도 전주의 미래먹거리산업이다.

▲ 인간을 이해하는 인터넷 세상, 사물인터넷(IoT)

최근 환경과 농업, 재난 산업,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스마트홈, 헬스케어, 쇼핑 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물인터넷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도착예정시간을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강장 시스템과 버스 운행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 Information System) 등이 현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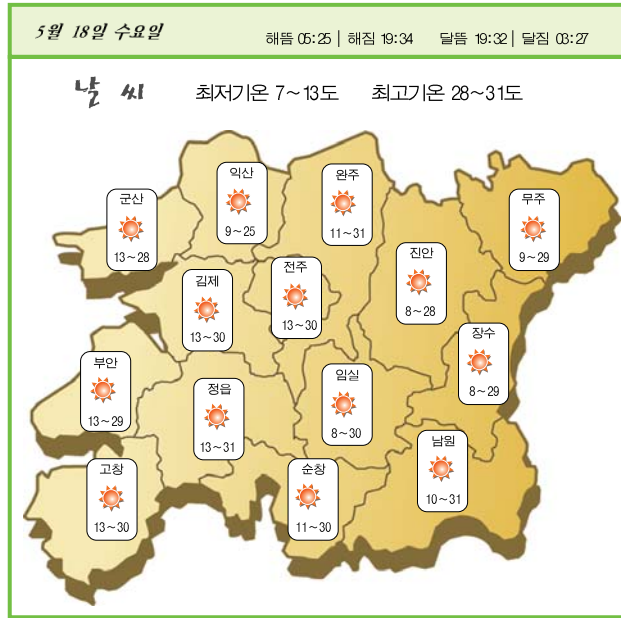
용 되는 대표적인 사물인터넷이다.

이미 시립도서관에서는 미래지향적 첨단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 CCTV관제센터 운영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T벤처센터 내에 지역 IoT산업 육성을 위한 K-ICT 디바이스랩을 개소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제품화 지원, 시정진출 등 지역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또한 시는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공모전과 창작실습교육, 아이디어 제품화, 컨설팅 및 멘토링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경제적 지위 암시 기재 불가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 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변경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유변은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어떠한 항목에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각종 공인어휘시험, 모의고사, 전국연합평가의 성적이나 이와 관련한 고내 수상 실적도 기재할 수 없다.

또한 교외경시대회,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할 수 있다.

UP는 대학이 개설한 대학 수준 교육과정을 고교생이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진학 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업과정 안에서 학생 스스로 수행한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행평가 등은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7일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익성빌딩에서 열린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혜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서문신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주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

대한민국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가 문을 열면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인 3D프린팅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3D프린팅은 AI(인공지능)와 드론(무인비행장치), IoT(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조방법에 혁명과 혁신을 가져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으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는 국내 신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7일 완산구 효동3길 익성빌딩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서문신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익성빌딩 4층과 5층에 마련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는 지역 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3D프린팅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시제품제작실, 기업지원실, 창의공간 등 3D프린팅 관련 종합지원체계를 갖춘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는 3D프린팅 전주센터를 통해 탄소 등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프린팅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지원에 필요

한 장비인 3D프린터와 PCSW, 역설계용 스캐너, 레이저 절단기, 후처리장비, 소재제조장비 등의 장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탄소특화의 전문문화중심 기반사업과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센터 운영은 지역 ICT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게 된다.

시는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로 전주가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중심도시이자 제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LINC사업 '매우 우수'

2년 연속 국립대·도내 대학중 가장 많은 53억 배정받아

전북대 LINC사업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대 LINC사업단(단장 설경원)에 따르면 정부의 LINC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북대 LINC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립대와 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53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 등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국내 51개 선정 대학 가운데 최대 사업비를 수주한 데 이어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국내 최고 사업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 LINC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기업으로 기술 이전해 전국 6개 대학으로 전파해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했다.

또한 산학협력 협의회를 통한 학생 취업, 현장실습, 참여 기업 해외 진출 등 전주지역 기업지원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

한 기업지원 일환으로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CI·BI제작지원사업, 국내외 전시회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지원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현장형 인재양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공계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배양을 위한 인문학 특강, TRIZ교육, 창업마인드 고취를 위한 CEO초청특강 등을 통해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 전국 대학생 TRIZ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1위,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북 산학협력 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다양한 외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설경원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전북대 LINC사업은 상호 교차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과의 동반 성장 시대를 열어내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창조경제 시대에 발맞춰 창의적 융합인재를 많이 양성하고 지역 전라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